

궁금한 마음이나 불안간의 호기심, 때마다의 관심사가 책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곤 했다. 신문을 볼 때도 인터넷을 누빌 때도 책이 등장하면 으레 눈이 멈추곤 했다. 어느 곳에서 인상적인 책 한 구절을 발견할 때면, 인용된 책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그 한 구절을 둘러싼 맥락을, 숨은 뜻을 들여다보고 싶어서였다. 이것이 김영춘 국회의사무총장의 책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글 이정원 사진 최충식

책이라는 불을 켜고 삶이라는 밤을 밝히다

김영춘 국회의사무총장



김영춘 국회의사무총장

책을 읽고 성장한 소년

지친 어깨로 돌아온 날에도 어김없었다. 기분 좋게 취기가 오른 날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 어떤 날에도 김영춘 사무총장의 하루는 책으로 마침표를 찍어왔다. 무려 사십 년째 지켜온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도대체 책이 뭐 그리 좋길래 고단한 몸으로 붙들고 있었던 걸까. 매일 밤 한 챕터씩,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덕분에 일에 쫓길 때도 책과 멀어지지 않았다. 일상 속 긴장을 내려놓는 무방비의 시간. 그가 잠들기 전 마지막 시간을 책과 함께하게 된 건 대학 시절부터였다.

“대학교 문학 서클에서 만났던 선배가 그러더군요.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잠들기 전에 꼭 책을 읽는다고요. 꽤 멋져 보여서 따라 한 게 어느새 사십 년 습관이 된 겁니다. 주로 기행문이나 수필처럼 가벼운 글을 읽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항상 책을 가까이 두다 보니, 독서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아서 좋습니다.”

캠퍼스 새내기와의 책과의 별난 만남을 상상케 하는 이야기. 하지만 김영춘 사무총장이 처음 책에 빠져든 건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었다.

부산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책이 충분치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보시던 신문을 책 삼아 한글을 깨치고 한자를

☞ 그때, 그냥 책 속에 묻혀 ☜
얼른 크고만 싶었어.

장윤우 시인, 헌책방 中





66

소마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죠.
 단, 강제되지 않은 소마여야만 합니다.
 음악, 춤, 운동, 수다 등 자신만의
 소마를 직접 찾아내야 하고요.
 제 소마는 건기와 독서예요.
 고갈된 정신에 힘을 주고 거름이 돼
 매번 저를 일으켜줍니다.

99

익혔다. 그에게 진짜 책을 쥐여준 건 70년대의 강압적인 독서문화였다. 학교마다 ‘자유 교양 경시대회’ 우승을 노리며 학생들에게 책을 주입하던 시절. 김영춘 사무총장은 중학교 3학년까지, 내리 오 년을 학교 대표로 뽑혀 책과 싸움을 벌였다.

“대회 우승을 위해 몇 달을 도서관에 갇혀 있었다면 믿으실까요? 수업 대신 도서관에서 지정된 책들을 달달 외우고, 모의시험을 보곤 했어요. 한 문제에 등수가 달라지는 대회라 학교 명예를 지키려고 공부하듯 책을 읽었죠. 『사서삼경』, 『삼국사기』, 『알프스 소녀 하이디』 같은 책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어디 학생들이 똑같은 책만 주야장천 읽고 있었어요. 도서관에 있던 모든 책이 우리의 놀잇감이 됐어요. 무협지부터 연애소설까지, 말 그대로 난독의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때 김영춘 사무총장의 가슴 속으로 책 한 권이 날아

들었다. 소년들의 바이블이라 불리던 소설 『데미안』이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이 한 문장에 사로잡힌 그와 친구들은 알을 깨기 위한 자신들의 몸부림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로의 개똥철학 앞에서 한없이 무거워졌고, 그 무게만큼 성장해 갔다. 데미안에 담긴 헤르만 헤세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책을 화두 삼아 머리를 맞댄 경험은 아주 특별했다.

“저한테도 데미안 같은 성장의 조력자가 있었어요. 싱클레어처럼 주춤거리던 저를 질책하고 자신감을 채워주신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노력에 따른 성과를 경험케 해주신 중학교 선생님. 아주 좁은 세상에 살던 소년을 연극과 음악으로 이끌어, 또 다른 세계에 눈뜨게 해주신 미술 선생님. 그분들, 그 데미안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책은 나를 지키는 묘약

독서가 일상이 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김영춘 사무총장에게는 바람 하나가 뿌리내렸다. 매주 시평과 서평을 즐기던 문학 소년다웠던 꿈, 국어국문학과로 진학을 바라던 그에게, 아버지는 다른 의견을 내놓으셨다. 가고 싶은 대학도 원하는 전공도 달라 날을 세우던 두 사람에게 형이 내놓은 중재안은 그럴듯했다. 동생에게는 원하는 대학을, 아버지에게는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을 제시한 것. 그렇게 그는 81학번 영어영문학도가 됐다.

“결론은 후회했다는 겁니다. 영문과에서도 문학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읽어야 할 시와 소설, 희곡은 차고 넘치는데 그게 다 원서인 거예요. 문학 그 자체에 몰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민주화운동에 뛰어들면서는 어휴... (웃음) 학사경고에 입학 때 받은 사 년 장학금도 날아갔고요. 아버지께서는 대학 대신 동네 신발공장에 보내야 했다고 한탄하기도 하셨죠.”

그렇다고 차곡차곡 쌓아온 독서 내공이 사라지기가 했겠는가. 김영춘 사무총장은 교과서처럼 읽히던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만나, 강대국 사이에 존재하는 한국의 실상을 마주했다. 샬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에도 빠져들었다. 폭풍의 언덕은 그가 유난히 좋아하던 작품이었다. 황량한 들판에 자리한 외딴 저택 ‘워더링 하이즈’에서 펼쳐지는 비극적 사랑과 잔인한 복수. 종이 밖으로 튀어나온 강렬한 문장과 광기 어린 이야기에 그도 취했었나 보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역시 절대 잊을 수 없는 책입니다. 인간적인 것은 모두 통제되고, 오직 과학과 기술로만 사람을 양육하는 신세계는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었죠. 소설 결말에서 야만인 존이 신세계의 통제된 삶과 조작된 행복을 목격하고,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대목을 읽으면서요. 자유의지가 거세된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하게 되더군요. 재미와 메시지를 훌륭하게 표현해 낸 책이었습니다.”

그의 찬사 앞에 질문 하나를 던져봤다. 신세계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 삼켰던 약물인 소마. 소마 1g이면 불쾌함도 불안함도 사라지고 오직 행복감만 준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혹시 그도 소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소마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죠. 단, 강제되지 않은 소마여야만 합니다. 음악, 춤, 운동, 수다 등 자신만의 소마를 직접 찾아내야 하고요. 제 소마는 걷기와 독서예요. 고갈된 정신에 힘을 주고 거름이 돼 매번 저를 일으켜줍니다.”

책이 건넨 용기와 도전

2008년 김영춘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남쪽 해안을 따라 29일간 자전거 여행을 떠났다. 당의 해산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속죄의 심정으로 떠나, 순례 의식 같은 마음으로 두 발을 멈추지 않았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66

저한테도 데미안 같은
성장의 조력자가 있었어요.
싱클레어처럼 주춤거리던 저를 질책하고
자신감을 채워주신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노력에 따른 성과를 경험케 해주신 중학교 선생님.
아주 좁은 세상에 살던 소년을
연극과 음악으로 이끌어,
또 다른 세계에 눈뜨게 해주신 미술 선생님.
그분들, 그 데미안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99





오가던 수준에서 강행한 여행은 참담했다. 완만한 고개조차 넘기 힘들었고, 넘어지기 일쑤였다. 페달을 밟은 지 열흘이 될 즈음에야 그와 자전거는 한 팀이 될 수 있었다.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 전에 홍은택 전직 기자의 『아메리카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80일 동안 자전거로 미국을 달리며 마주한 고난과 깨달음의 기록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뜨거워지더군요.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인 자전거 여행에 나설 수 있었죠. 언젠가 다시 도전할 생각도 갖고 있어요. 4대강 사업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4대강 순례에 나서볼까도 싶고요. 북한 길이 열리면 신나게 달려보고도 싶습니다.”

자전거 여행을 끝내고 한동안 야인으로 지내던 김영춘 사무총장은 무겁고 어려운 책 한 권을 만났다. 서중석 역사학자의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이었다. 1910년대 만주의 독립운동을 있는 그대로 풀어낸 책 앞에, 그는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의 참담하고 비참한 생애에 할 말을 잃어버렸다.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더군요. 어떤 말로도 독립운동의 고통과 희생을 담아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제가 부끄러웠고요. 안전하고 익숙한 곳을 벗어나 새로운 정치일꾼이 되자

는 다짐까지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흉내낼 수도 없겠지만요. 책 속 이회영 선생처럼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뒤에서 일하는 모습을 닮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선생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꿈도 가져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책이 지닌 제일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다. 곧 어느 문학치료사의 책 한 구절이 떠올랐다. 이게 답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어딘가에 당신을 일으킬 책이 있다. 내 옆에 책이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 🌈

book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의 '내 곁의 책'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서중석 | 역사비평사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 소담출판사



데미안
헤르만 헤세 | 민음사